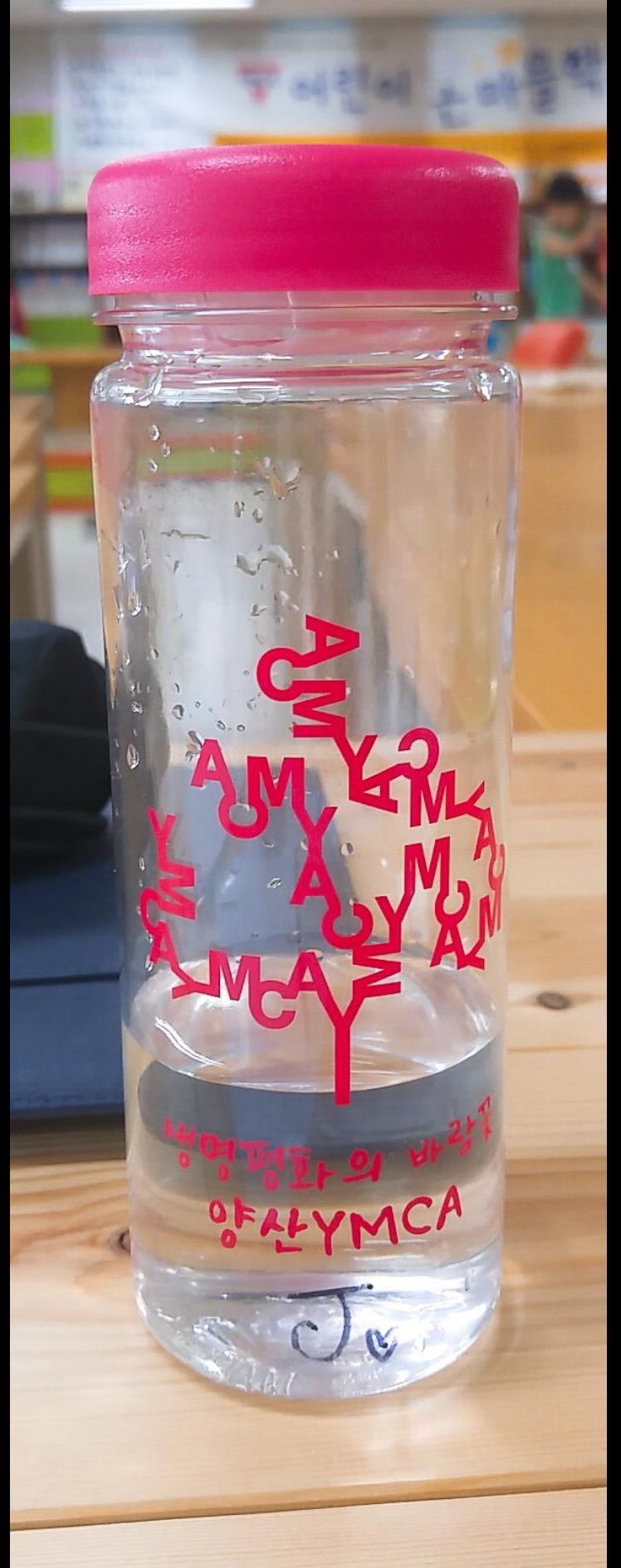


노
12 평이들의

350ppm

하나.
텀블러
사용하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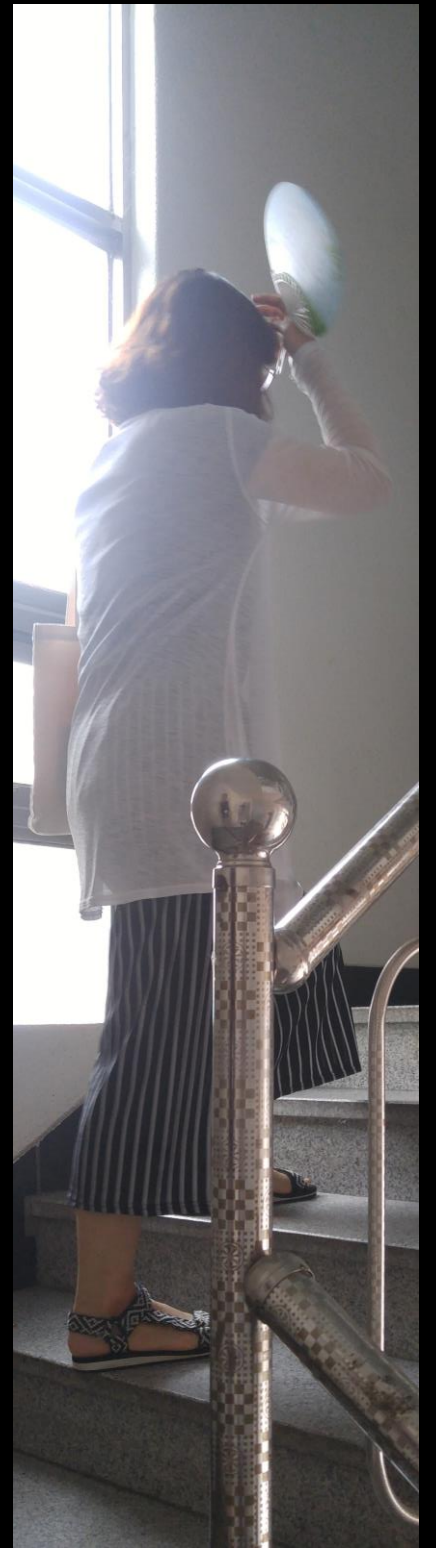


둘. 음식 남기지 않기





셋. 3층 이하
계단이용하기



넷. 플러그 뽑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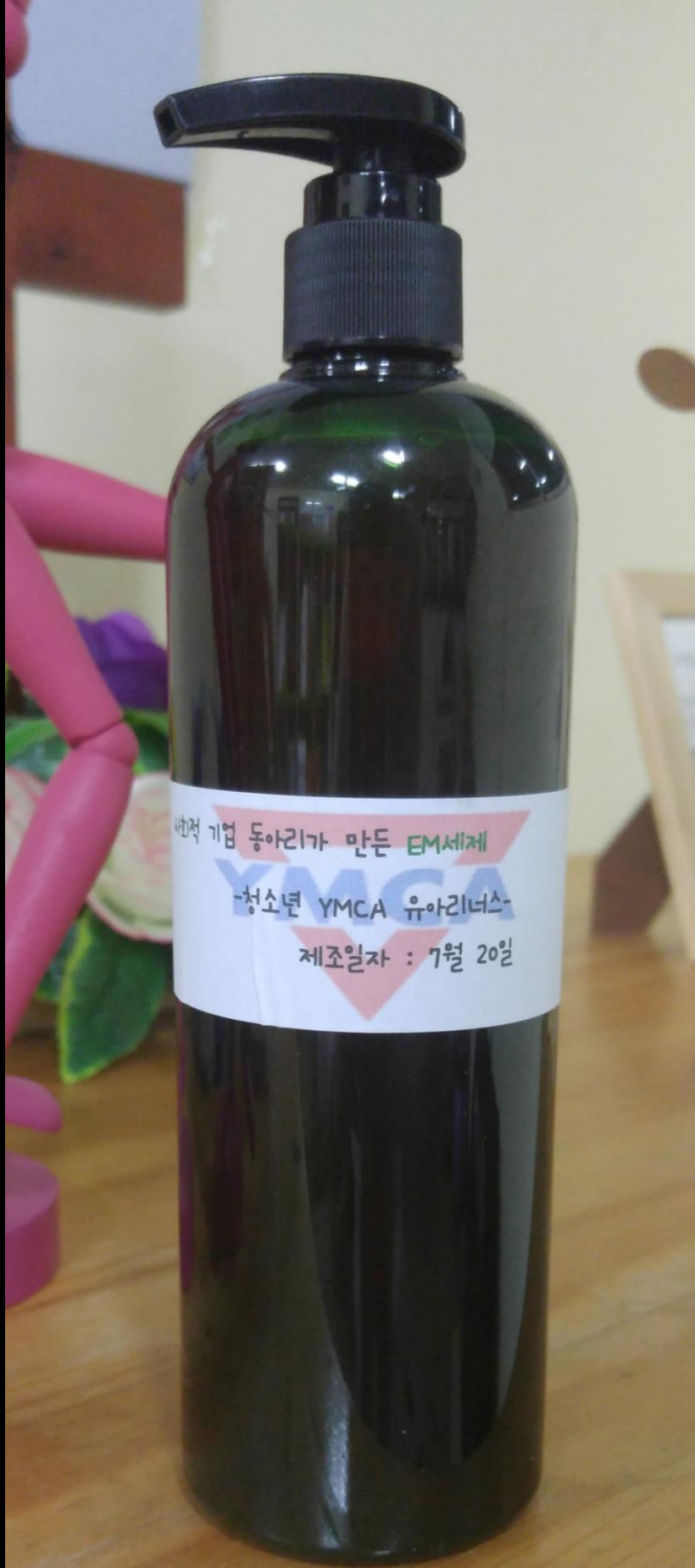


다섯.

텃밭 가꾸기







여섯.

EM세제



EM 세제



EM이란? EM(Effective Micro-organisms)
'유용 미생물군'의 약자

EM세제의 효과 향균 탈취제, 비누,
등 활용도가 높고, 효과도 좋다

효과 👉 부패균을 억제시켜 악취를 제거
준다

효과 🐰 유용 미생물의 정착으로 깨끗한
정화 시켜준다

판매취지 경제동아리의 활동으로
친환경 세제를 제작·판매해 보는
것도,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
기여함.

Price : 5000 ₩

일곱.

대중교통 이용하기





많이 어색했다. 어색하고 불편하고
의식적으로 지키려 하다보니 더
어렵게만 느꼈다. 그러나 어느 순간
습관이 되면서 그러한 불편함은 전혀
느끼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규칙들을
지키고 지키려 하는 내 모습이 부듯했다.



처음에 350ppm을 들을 때 캠페인하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 했지만 캠페인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수롭지 않게 행동이 350ppm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았다. 불편한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씩 실천해가면서 성취감을 느꼈다.



철원과 파주에서 배웠던 ‘자발적 불편함’을 삶 속에서 만나는 시간이었다. 조금 귀찮고 번거로워도 환경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겠다. 일시적인 실천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나가고 싶다.



남은 음식을 볼 때 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 농부들이 생각이 나서 쌀 한 톨까지 먹으려고 노력했다. 작년보다 뜨거워진 날씨로 인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느낄 수 있었다. 우리들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것 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.

